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0년도 제45호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 대한체육회장선거...

#### 후보 단일화 후끈

장영달, 문대성 불출마,  
이종걸 출마 전격 선언 등  
탄탄한 지지층 구축한  
현 회장 잡을 수 있을까



### 안민석 의원, 최철원

#### 금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에서 당선자  
자진 사퇴, 대한체육회  
취임 승인 거부, 문체부  
사태 해결 촉구 등 제안도



### 스포츠윤리센터,

#### 무엇이 문제인가

노조 '폭언 및 갑질, 노동  
법 위반' 등 27개 항목 진  
정서 제출, 이숙진 이사장  
'노조 주장 사실 아냐'



### 371일만에 자리에서

#### 물러난 최윤희 차관

스포츠인권 제자리걸음  
평가... 후임 김정배 차관  
공무원 30년 생활 중 체육  
관련 업무 1년 6개월





# '데자뷰? 극적 타결?' 韓 체육회장 후보 단일화 후끈

한국 스포츠를 이끌 수장을 뽑는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과연 이기흥 현 회장이 연임될지, 체육계 야권이 이를 저지할지 체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 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8일. 내로라 하는 체육계 인사들이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지난 27일 후보군 사이에서 급격한 변화가 이뤄졌다.

두 차례나 기자회견을 자청할 정도로 강한 출마 의사를 보였던 장영달 우석대 명예총장이 불출마하기로 한 것. 체육회장 선거에 나서겠다고 문대성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이 불출마하면서까지 장 총장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던 터였다. 대신 같은 날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이 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인권 변호사와 5선 의원을 지낸 이 의장은 2004년부터 10년 동안 대한농구협회장을 맡은 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 체육회장 선거에서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인물이다.

일각에서는 장 총장과 이 의원 사이에 모종의 협의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장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 때 사전 선거 운동 혐의로 대법원에서 500만 원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아 자격 논란이 벌어진 만큼 주자를 교체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장 총장 측은 내심 성탄절 사면을 기대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불출마로 가닥을 잡고, 이 의장을 대신 내세웠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의장 측은 26일 이후 급하게 체육회장 선거 판세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총장의 사면이 불발된 직후였다. 현재 판도를 가늠해본 뒤 회장 출마 여부를 저울질한 모양새다. 결국 이번 선거의 쟁점은 야권 단일화다. 이기흥 현 회장이 탄탄한 지지층을 구축한 만큼 상대적으로 불리한 야권 후보들이 단일화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한 체육계 인사는 "이 회장은 생활 체육을 강화하는 현 정부의 지침에 맞서 엘리트 체육인들의 확실한 지지를 얻고 있다"면서 "야권 후보들이 통합하지 못하면 표가 분산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4년 전 선거에서도 단일화는 중요한 이슈였다. 물론 당시 이 회장도 체육회장에 도전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카누와 수영연맹 회장과 아시안게임, 올림픽 선수단장까지 역임하며 15년 이상 체육계에서 지지 기반을 마련한 상황. 이 회장과 대적하는 경쟁자들은 단일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당시 이 회장에 맞선 단일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박근혜 정부 측이 지지하는 후보로 분류되던 장호성 단국대 총장, 전병관 경희대 교수, 이에리사 전 국회의원 등이 모두 출마했다.

결국 표가 분산되면서 이 회장이 40대 체육회장에 당선됐다. 단일화 무산으로 이 회장이 어부지리를 얻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당시 이 회장이 총 892표 중 294표, 장호성 총장이 213표, 전 교수가 189표, 이 의원이 171표를 얻었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른바 '반 이기흥' 전선의 단일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출마 의사를 밝힌 강신욱 단국대 교수는 지난달 회견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는 쉽지 않은 문제지만 회장 선거를 오랜 시간 준비했고, 스스로도 매우 자신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절대로 중간에 멈추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단일화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도 같은 입장이었다.

그러나 후보 등록을 앞두고 분위기가 달라졌다. 4년 전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강 교수와 유 회장, 윤강로 국제스포츠연구원장 등이 단일화에 원론적으로 합의한 가운데 이 의장과 출마를 고려 중인 이 전 의원까지 협상을 벌일 전망이다.

공교롭게도 이 회장은 재임 기간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었지만 이번에도 정부 측과는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이 회장에 맞서는 유력 후보는 현 정부의 체육정책을 지지하는 상황. 과연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 수 있을까.



## 안민석 의원, '맷값 폭행' 가해자 최철원 금지법 대표발의

'맷값 폭행' 가해자로 영화 '베테랑'의 모티브가 됐던 최철원 씨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차기 회장으로 당선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국회 정론관에서 반사회적 범죄행위자의 체육단체 회장 취임을 막는 일명 '최철원 금지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체육단체장의 결격사유나 취임 승인 거부 등에 대한 규정이 체육단체의 자체 규정에는 있으나, 현행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여자 국가대표 미투 사건,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의 자살 등 국민적 공분을 사는 사건이 연이어 터지며 체육계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체육단체장의 결격사유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최철원 금지법은 ▲체육단체장의 결격사유를 법률로 규정하고 ▲심각한 반사회적 반윤리적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체육단체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문체부 장관은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당선자의 취임 승인을 승인한다는 현행 규정에 취임 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장은 지방체육회를 제외한 회원단체 중앙 조직의 장이 결격사유가 있으면 취임 승인을 거부하도록 했고, 문체부 장관도 각 체육회장에게 취임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민석 의원은 "대한체육회가 최철원 씨를 인준한다면, 국민과 체육인들의 기대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일이며 체육계 흑역사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사회적 범죄자들이 체육단체 회장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묵묵히 봉사하는 다수의 체육인들이 신뢰와 존경을 받을 바란다"며, "스포츠 인권은 시대정신이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최철원 금지법의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최철원 씨가 회장에 취임할 경우 여야 의원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청원과 취임 승인 취소 국회 결의안 등 최철원 씨 퇴출 운동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민석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철원 당선자 자진 사퇴 ▲대한체육회 취임 승인 거부 ▲문체부 사태 해결 촉구 등 3가지 제안도 발표했다.



## 스포츠윤리센터 직장 내 갑질 있었나...노조 진정서 제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해 지난 8월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센터장 이숙진)가 내부 갈등에 휩싸였다. 새 기구가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불거졌고, 결국 노조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스포츠윤리센터 바른노동조합 김성배 위원장은 지난 18일 공공서비스 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정서에는 8개분야 27개 항목의 내용이 담겼다. 진정내용에는 인권침해, 갑질행위, 직권남용, 조직사유화 및 노동법 위반 등의 주장이 포함됐다. 진정서에는 27개 항목마다 피해직원이나 관계직원 등의 서명이 담긴 진술서와 증빙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중 직장 내 갑질 신고센터 미설치, 취업규칙 미구비, 연봉 계약 및 보수 규정 문제, 팀장 이상에게 시간외 수당 미지급, 야근시 식비 지급 문제 등에 대해서는 모든 직원의 진술 및 동의가 이뤄졌다고 명시됐다. 이밖에 일선 조사관들에게 결정문 작성 및 처분 결정을 요구한 것도 센터 내 운영세칙과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이 담겼다.

연봉 관련 갈등도 불거졌다. 조직 구성 당시 채용공고상의 연봉과 센터 설립된 후 제정된 보수 규정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센터는 직급별 보수 규정의 하한액을 적용했다가 9~11월 동안 보수규정이 아닌 채용공고상의 하한액을 적용함으로써 기지급된 급여의 차액을 회수하는 일이 벌어졌다. 반면, 이숙진 센터장이 설립 이후 보수규정상의 최고 상한액을 지급받은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결국 10월 7일 노조가 설립됐고 이 과정에서 노조 설립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문제 삼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연봉 관련 문제에 대해 '노조설립 이후 임금산정 협의를 위해 노사간에 지속적으로 대화하였으며, 11월 19일 임금산정합의서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른 보수규정 개정 및 문화체육관광부 승인(1216)에 따라 인상된 임금의 소급지급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탄압과 무력화를 위한 어떤 시도도 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인권침해, 갑질행위 등 진정 내용에 대해서는 "진정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축이 돼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독립 법인으로 지난해 1월 스포츠계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설립 논의가 시작됐다. 근거 법률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이후 설립추진단을 통해 6개월간 준비 기간을 거쳐 설립돼 지난 8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이데일리  
이석무 기자 2020.12.24

## 이숙진 이사장 “폭언 등 노조 주장 사실 아냐... 스포츠윤리센터, 조직진단 필요”

최근 불거진 스포츠윤리센터의 노사 갈등에 대해 당사자인 이숙진(56)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이 직접 입을 열었다.

이숙진 이사장은 23일 이데일리와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최근 한 매체를 통해 스포츠윤리센터 노동조합이 주장한 여러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해명했다.

이숙진 이사장은 “직원들과 임금 인상안이 최종 합의된 상황에서 노조가 갑작스럽게 행동에 나서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다”며 “진정서 문제는 그간 임금 협의를 해온 것과는 무관한 문제다”고 밝혔다.

또한 ‘센터에 제기된 민원이 90건이 넘는데 아직 완결된 사안은 한 건도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총 93건의 신고 접수가 들어왔고 1, 2차 심의를 거쳐 17건이 심의됐고 12건이 사건 처리가 확정됐다”며 “심의 자체가 가동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틀린 얘기다”고 설명했다. 직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숙진 이사장은 현재 스포츠윤리센터의 인력 구성이나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출발부터 제대로 잘 설계됐는지, 이 설계대로 가면 제대로 될 수 있는지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센터에 전반적인 조직 진단이 이뤄져야 하며 문체부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숙진 이사장은 대통령비서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비서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를 거쳐 2017~2019년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냈다.

이에 앞서 스포츠윤리센터 바른노동조합은 이숙진 이사장이 비정상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면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지난 21일 공공서비스 노동조합총연맹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축이 돼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8월 출범한 독립 법인이다.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의 신고 기능을 통합해 체육계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스포츠계 인권침해 및 비리에 관해 조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숙진 이사장과의 인터뷰 전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371일 만에 물러난 '아시아 인어' 최윤희...스포츠인권은 제자리걸음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어제 발표된 차관 인사로 취임 1년여 만에 물러났습니다. 스타선수 출신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故 최숙현 사태' 처리에서 보듯 체육 행정이나 스포츠 인권에서 제자리걸음 했다는 냉혹한 평가가 나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철인3종 유망주, 故 최숙현 선수의 극단적 선택이 알려진 이튿날, 최윤희 전 차관을 단장으로 한 특별팀이 꾸려졌습니다.

[최윤희 / 前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특별조사단을 꾸려서 철저히 원인 규명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최 전 차관은 이후 부지런히 현장을 누볐지만, 보여 주기용 사진 찍기일 뿐, 알맹이 없다는 뒷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숙현 사태에 석 달을 매달렸는데, 업무 파악은 된 건지, 여러 차례 의문부호도 남겼습니다.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 최숙현 선수 가혹 행위를 가했던 무자격자 안주현 팀 닥터 기억하시죠? (네.) 무자격자가 선수를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 문체부가 대안 마련했고, 체육회에서도 동의했죠? 혹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최윤희 / 前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어... 지금 현재... 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혹 행위 신고·상담부터 인권 교육까지 원샷으로 한다는 스포츠 윤리센터도 출범 때 기대와 달리, 석연치 않은 직원 채용 정황에 노동조합과 갈등까지 불거지며 헛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던 최 전 차관은 '낙하산 보은 인사' 꼬리표에, 조직 장악력이 없어 내내 걸돌았습니다. 엘리트 중심의 대한체육회와도 KOC 분리 문제 등을 두고 각을 세웠습니다.

설상가상, 사상 초유의 올림픽 연기와 끝없는 코로나19 터널 속에, 최 전 차관은 결국, 371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후임 김정배 차관도 이른바 '체육 통과'는 거리가 멉니다. 30년 공무원 생활에서 체육과 관련된 업무를 한 기간은, 1년 6개월이 채 안 됩니다. 대통령까지 천명한 발등의 불, 스포츠 인권문제 해결부터 체육회와의 고질적인 갈등 구조, 당장 코앞의 도쿄올림픽까지 문체부 체육 수장의 교체에 일단은 반신반의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 [금주의 스포츠 관련 기사]

제8대 경찰청 인권위원회 출범...위원장에 문경란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93366626001144&mediaCodeNo=257&OutLnkChk=Y>

나는 상상한다, 다른 2021년 스포츠 문화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559>

지방체육회 '직장내 괴롭힘' 만연...인권침해 논란 재점화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221000218>

체육분야 인권보호 위한 '표준계약서' 추진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7165>

스포츠인권 존중, 이렇게 해보세요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205>

[김학수의 사람 '人'] 대한체육회장 후보 강신욱 교수 "조직 사유화, 스포츠 정치화에 반대한다"

[http://www.maniareport.com/view.php?ud=202012240956398855e8e941087\\_19](http://www.maniareport.com/view.php?ud=202012240956398855e8e941087_19)

[정태화의 B&W]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부쳐---국내외 문제에 함께 대처해 나가야

[http://www.maniareport.com/view.php?ud=20201227133114944018e70538d2\\_19](http://www.maniareport.com/view.php?ud=20201227133114944018e70538d2_19)

취미생활서 국가대표로... 생활체육이 인생 바꾼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25026005&wlog\\_tag3=naver](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25026005&wlog_tag3=naver)

'체육계 대통령' 대한체육회장 선거 레이스 내주 시작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2109310000907?did=NA>

프로스포츠협회, 선수 지원금 첫 지급...61명에게 총 7600만원 지원

<https://www.news1.kr/articles/?4159740>

# 대한체육회장 선거 관련 부정선거 제보 안내

체육시민연대는 대한체육회장 선출 선거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법·부정선거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받고자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을 통해 도덕적으로 신뢰받는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 제보사항

-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선거운동
- 후보자 비방, 중상, 인신공격,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 등
- 후보자 자질 및 도덕성 검증이 필요한 사항

전화 02-2279-8999 이메일 [sports-cm@daum.net](mailto:sports-cm@daum.net)

※ 제보자의 익명성과 신분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 스포츠계

## 인권침해 제보 및

## 지원활동 안내



체육시민연대는

‘철인3종선수 사망사건 공대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스포츠인권팀’ 소속

10여분의 인권변호사분들과 함께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스포츠계 인권침해 제보가 들어오면

초기상담을 통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합니다.

☑ 아래의 이메일로 제보 바랍니다.

공동대책위원회

✉ [forsportsreform@gmail.com](mailto:forsportsreform@gmail.com)

체육시민연대

✉ [sports-cm@daum.net](mailto:sports-cm@daum.net)

#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www.sportscm.org/index.php?module=Inquiry&action=SiteInquiry&sMode=INSERT\\_FORM&InquiryNo=2](http://www.sportscm.org/index.php?module=Inquiry&action=SiteInquiry&sMode=INSERT_FORM&InquiryNo=2)